

# 북한의 관광

정석홍 / 평화문제연구소 자문위원

## 북한의 관광에 대한 관심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관광이란 말이 없다. 그러나 대외사업과 관련,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1956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폐쇄적 사회체제 유지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와서는 관광산업을 자연자원으로 큰 투자없이 외화획득에 유리한 산업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외국과의 합영 대상 5개 분야 중 관광산업을 포함시킨 바 있다.

북한이 1980년대 들어와서 관광산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첫째로 관광산업을 외화벌이 사업으로 육성해 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이 관광산업으로 상당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성공 사례를 눈여겨 본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고립화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아울러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관광 코스만 보더라도 그들의 사회주의 선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주요 관광코스

북한 당국의 관광기관이 소개하고 있는 관광

일정은 1박 2일에서 14박 15일까지도 있으며 전문관광은 40일까지도 가능하다. 북한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또 세계적인 미담지이기 때문에 여행가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해외 동포들의 가족상봉상의 이유로도 북한 방문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주요 관광코스는 다음과 같다.

① 등산 탐험관광은 9박 10일 또는 14박 15일로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 주로 북한내 유명한 산들이 포함되고 있다. 비슷한 코스로 '동식물 조사 관찰 관광' (10일~15일)과 '백두산 도보관광' (10일~15일) 등이 있다. ② 골프 관광은 4박 5일 내지 6박 7일로 평양 골프장과 기타 평양 근교의 지역관광이 포함된다. ③ 감탕 치료관광은 금강산 시중호 요양지에서 단기 또는 30일 내지 37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광이 있다. 감탕은 깃털로 맛사지하는 것인데 각종 성인병과 여성들의 미용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이 감탕욕은 이미 구라과 해양국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함께 인기 품목 중의 하나이다. ④ 동의 치료관광은 30~40일간 조선동의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관광상품이다. 이것은 중국의 한의학 치료관광을 모방한 상품으로 동의학 소개와 함께 굳이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을 갖고 있다.

⑤ 자연계 전문분야 연구 관련 관광으로는 '백두산 천지 생물조사관광' (10~15일)이 있고, '백두산 화산지대 지질연구관광' (10~15일) 등이 있으며 주로 백두산 중심의 과학조사 관광이다. ⑥ 인문·체육분야 전문 관광으로는 '무용표기법 배우기 관광' (7박 8일 또는 15박 16일)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조선무용 전수와 북한 문화예술의 소개를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그리고 '태권도관광' (22박 23일 또는 40박 41일)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직을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진출과 선수·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말 배우기 관광' (15~30일)은 평양외국어 대학이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모국 소개와 어학연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일군관광'이라 해서 방학 중 1주일 내지 2주일간 해외동포 교육기관의 교사들을 위해 개설된 관광상품이 있다. ⑦ 또한 '혼례식관광' (4박 5일)이라는 신혼관광이 있고 7~15일간의 '사냥관광'이 있는데 주로 청단군과 연산군으로 지정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개인 여행이나 개인 관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관광상품은 아직도 자기 체제의 소개나 자연자원을 내용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관광상품의 주요 요소인 '보고', '즐길'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 평양권

평양권의 관광명소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역사 유적·명승지로 울밀대, 부벽루, 최승대, 대동문, 칠성문, 보통문, 인광정, 대성산성, 남문, 북장대, 안학궁터, 동명왕릉 등이 있고, 문화·예술품을 보존하고 있는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박물관들도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를 뒷받침하거나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민족사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고조선·고구려·고려시대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이 망라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 사회주의 시대의 기념비적 건조물들이 많다.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국제문화회관,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철, 예술영화촬영소, 5·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병상관, 평양산원, 창광원, 평양교예극장 등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③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다. 만경대(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수대, 김일성 동상, 혁명열사릉, 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기념관, 단군왕능(새로 개진), 김일성 대학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혁명업적을 기리는 것이다. 그외에 봉수교회, 장충성당 등은 관련 교인들의 관광코스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배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최근 김일성 어머니가 다녔다는 칠골교회(일명 강반석의 이름을 따 반석교회라고도 함)도 관광코스로 되어 있다. 평양권에 속한 남포권(진남포)은 서해갑문, 와우도 유원지, 구월산, 수양산, 석담9곡 등이 있는데, 서해갑문은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사

회주의건설 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이다.

## (2) 금강산권

금강산권은 내금강, 외금강과 원산권을 포함하고 해금강도 포함한다. 내금강의 비로봉, 만폭계곡, 장안사, 마의태자능 등 한반도 명승지가 다 모여 있고 외금강의 만물상, 구룡폭포 등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동해의 자랑이기도 한다. 그리고 해금강의 절묘함은 우주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케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금강산 암벽 등에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찬양의 글을 새겨 둔 것이다. 이것은 신의 창조에 대한 거역이요 자손만대에게 넘겨줄 조국 강산에 대한 아픈 상처가 될 것이다.

## (3) 묘향산권

묘향산은 평안북도 북단 향산군에 있다. 묘향산의 절경은 금강산에 비길 바가 아니라는 예찬론도 있을 만큼 빼어나다. 묘향산권에 속하는 만폭대, 불영대, 만폭동 계곡, 용연폭포, 만경폭포 등 자연의 조화는 천하 제일 강산을 대표할 수 있다. 북한 지역 불교사찰의 대표격인 보현사, 상원사가 있고, 불교 관계자는 꼭 이곳을 들리게 한다. 그리고 김일성이 생전, 가장 자랑하던 '국제친선전람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김일성에게 보낸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미국교포의 증언에 의하면 '코카콜라'병도 있었다고 한다. 영빈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외국 원수들이 들리는 곳이고 미확인 사실이지만 김일성이 급사한 곳도 이곳

별장이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시 이곳에서도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김일성이 좋아하는 명승지이다.

## (4) 백두산권

백두산권은 거의가 김일성 항일투쟁과 김정일 출생지로 미화된 전적지, 유적지로 날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자랑하는 삼지연 스키장 등 동계 경기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백두산 밀영, 김일성 혁명 사적지, 김정일 출생지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행군지 등으로 유명하다. 이 권내에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연관된 보천보, 무산지구 전적지 등이 있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는 길목에는 김일성 항일관련 유적지도 많이 조작되어 있다.

## (5) 개성·판문점권

1주일 이상의 코스에는 개성·판문점이 거의 끼어 있다. 개성 송악산을 중심으로 박연폭포, 관음사, 대흥사, 선죽교, 성균관, 공민왕능 등이 있고, 고구려 역사 박물관, 신천박물관(6·25전쟁기념) 등이 있으며, 판문점 관광을 통해서만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다고 비방하고 콘크리트 장벽 등을 인적왕래의 장애물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주로 반미사상 고취,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 한반도 긴장을 소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북한 지역은 우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하는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개인숭배 등을 혼합하고 있어 순수한 관광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인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철학과 원칙, 통일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맞이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대외적으로는 동서화해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세계질서 자체의 근본적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에서도 김일성의 사망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보다 자신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구상을 밝히게 된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통일정책의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면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통일철학과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 부분을 보완하고 그 명칭도 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돈함으로써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화해·협력단계를 통일과정의 첫단계로 설정한 점, 통일의 기본철학으로서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밝힘과 함께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한 점,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재확인하면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통일원 제공)